

잘 가 2025년, 어서와 2026년!!

이숙견 상임활동가

다사다난했던 2025년, 회원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시작부터 추웠던 날씨를 이겨내며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이루어냈지만, 우리가 바라는 평등사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향한 살인적인 단속추방 중단 요구, 한 달이 넘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동지들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 탄압 저지,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해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2026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말띠해인 '병오년' 새해 한노보연은 어느덧 출범 23년차를 맞이합니다.

2025년 총회는 2년을 관통하는 사업 목표로 △경제위기 시기 노동시간 개악, 노동자 통제 강화 등 유연화 공세로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될 여성·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쟁취하는 활동,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과 경험을 교류하고 확산하는 장 만들기, △회원 참여 활동 구체경로 그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2년차 계획의 중반을 경과하면서 한노보연은 사업 방향과 계획을 중간 점검하는 한편 이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총회를 1월 31일(토, 오후 3시) 개최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3차 총회에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총회에서 뵈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